

# 전남 서남해안 고수온 '초긴장'

### 신안 자은도~부산 다대포 주의보 함평만·도암만 등 지난달 고수온 경보 도, 어장환경 모니터링·대응장비 가동

전남 서남해안 바다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미 함평·도암·득량·여사·가막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신안 자은도 일대 해역부터 부산 다대포 해역(진도 냉수대 해역 제외)에 이르는 남해 연안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추가 발령되면서 어민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신안군 자은도~장산도·진도군 임회면 죽림리·해남 땅끝·완도 섬도·부산 다대포 해역(진도 냉수대 해역 제외)에 이르는 서남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진도 냉수대 해역을 제외한 서해안 일부와 남해 전 해역이 새로 올 포함한 것으로, 앞서, 신안군 압해읍 우간도·충남 서산리 창리 일대 서해 연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만큼 서남해 전 해역이 고수온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것이다.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사만·가막만 해역의 경우 전년도 보다 한 달 가량 빠른 지난달 8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일대 어민들은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보가 발령된 경남 사천만·강진만과 주의보가 발령된 서해 일부 및 남해 연안 수온은 8일 오후 1시 기준 27.9~28.8도 정도이며,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수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함평만의 경우 연안 수온이 이날 기준 30.2도 정도이며 여수 신월동을 포함한 가막만 일대 해역은 28.6도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바다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로 상향된다.

전남도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생물 및 어장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냉각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점검·가동토록 하고 사료 공급량을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수온 시기에는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 작업 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등 단계별 어장관리가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지는 등 고수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완도(3183어가)·여수(720어가)·신안(692어가) 등 2629 어가가 양식 수산물을 키우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지역 소멸 위기 속 생존 위한 연대 추진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내년 출범' 계획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7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 제공

##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 <2> 지역 메가시티도 불 붙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광역 특별연합' 정부 도움 없이 재원 마련은 난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역 소멸 위기는 수도권 인구 유출과 일 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뿐 아니라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도 닥친 현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국내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체 수만 2019년 기준이고 나머지는 지난해 기준이다.

이런 지방 위기를 타파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방의 연대다. 각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한 연대로 '특별지자체(메가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등 3개 광역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연합체를 출범했다.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다극체제로 전환을 위한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생존 방안이다.

3개 광역시도는 지난 4월 발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에 따라 특별연합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최초 메가시티 탄생을 인정하면서 부울경과 국가 사무 위임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협약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

제 극복 등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10여 곳의 정부 부처에서 61개 공동사무와 65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의 생활권을 자랑하지만 위상에 걸맞은 추가 권한 이양은 물론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도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자립 이듬해인 특별연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설립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자체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특자체 설립에 관한 용역을 8월부터 추진한다. 시·도가 구상 중인 특자체 추진 방향은 산업과 광역교통 분야 등에서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은 구체적으로 민선 8기 광주·전남 1호 상생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에너지·모빌리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시·도는 특자체 설립 준비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칭)광주전남 합동준비단' 한시 기구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특자체는 향후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본격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관계자들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을 연결하고 1시간 생활권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항만·공항·철도를 연결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부울경 공동협력사업 추진, 협력을 통한 지역 우수 인재 집중양성 등을 통한 공간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광록 기자 kroh@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인재상' 도전하세요 광주시, 후보자 24일까지 접수 대학생·청년일반인 부문 4명 추천

광주시는 "광주지역 대학생·청년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상을 발굴·시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의 우수인재 총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선발하며, 국무총리상(1명)은 상금 300만원,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99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광주시는 지역 대학생·청년일반인 부문 후보를 접수해 지역심사를 거쳐 총 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 중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2명이 선발된다. 고등학생은 시 교육청을 통해 지역심사가 진행된다.

지원자는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포털(http://injaeward.saramin.co.kr)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추천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광주지역 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광주시 인재육성과(613-1642)로 하면 된다.

2021년 광주지역 대학생·청년일반인 부문 대한민국 인재상은 발레의 대중화에 기여한 광주시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강은혜씨와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세계 4위에 오른 광주과학기술원 이지웅씨가 수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웅천~소호 연결 선소대교 내일 준공 전남 여수시가 오는 11일 웅천 예술마루 앞 야외 무대에서 웅천~소호 간 연결 다리인 선소대교 준공식과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야간 여수 선소대교 전경.

# 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가 부담 댄다

### 지방비 지원 한도 상향 전 품목 1000만원까지 지원

전남도가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온 등 특약

추가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는 보험료 납부액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어업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000만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50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추경에 지방비 16억원을 증액한 총 64억원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 지원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용해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 중]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출렁다리